

# ‘한동훈號’ 비정치인 8명 전진 배치



28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김 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국힘 비대위 총 11명 인선 기존보다 평균 10년 젊어져 오늘 상임전국위 추인 절차

국민의힘이 28일 박은식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 등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박정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비대위원 인선안을 발표했다. 오는 29일 인선안이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으면 비대위가 공식 출범한다. 비대위는 50세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한 비대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지역적 비대위원은 8명이고, 3선 현역 의원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 당연직 비대위원이다. 45세 동갑인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구자용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가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 최근 인재영입위원회가 영입한 윤도현 '자립준비 청년 지원(SOL)' 대표는 21세로 최연소 비대위원이 됐다. 39세인 박은식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도 합류했다. 과거 학생운동권에서 활동하다 운동권 정치 정산을 주장하는 민경우(58) 대안연대 상임대표, '조국 흑서' 저자로 유명한 김경률(54) 회계사 등 이른바 '86' 세대도 합류했다. 민경우, 김경률 비대위원을 포함해 7명의 비대위원은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다. 지역적 비대위원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은 직접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김예지(43) 비례대표

의원이다. 한동훈 비대위는 기존 지도부와 비교해 한층 젊어졌고, 여성이 늘었다. 한 위원장과 지역적 비대위원 등 9명의 나이를 합치면 400세(평균 44.4세)다. 지난 3·8 정당대회로 출범했던 김기현(64) 전 대표와 김병민(41)·김재원(59)·조수진(51)·태영호(61)·강대식(64) 전 최고위원 및 장예찬(35) 전 청년최고위원 7명의 평균 나이(53.6세)보다 10살 가까이 젊어진 셈이다. 여성이 3명(한지아, 장서정, 김예지)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끈다. 대부분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호남권 출신이다. 한 위원장은 상임전국위 추인 절차를 마치면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비대위원 인선 배경을 설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이관섭 선임

### 정책실장 성태윤·안보실장 장호진... 대통령실 3실장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비서실장에 이관섭(사진) 정책실장을 선임했다. 또 공석이 되는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공석이던 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약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동시에 대통령실 '3실장'을 모두 바꿈으로써 '2기 대통령실' 인선을 마무리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그는 "비서실장직을 금년 말까지만 하고 내년 1월 1일부

터는 이관섭 실장이 내 후임이 됐다"고 말했다. 초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이관섭 정책실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신설된 정책실장직에 승진 기용된 지 한 달도 안 돼 비서실장으로 이동하게 됐다. 김 실장은 "20개월이던 대통령 임기의 한 3분의 1쯤 된다"며 "20개월 정도 하면 내 소임은 다 하지 않으나 생각이 들어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그저께 승인을 해줬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성 내정자에 대해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부처들의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하며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정책 전문가"라고 평했다.



김 실장은 내 내정자에 대해선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분이자 정통 외교관"이라며 "오늘날 안보라는 게 한 나라의 자주국방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동맹국들의 외교 관계가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적인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후임 외교부 1차관으로는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내정됐다. 김 신임 1차관은 외무고시 18회 출신으로 외교부에서 한미안보협력관, 평화외교기획단장, 차관보에 이어 우리측 북핵 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다. 김 실장은 "북핵·북미 외교 전문가"라며 "1차관으로서 주요 국가들과 양자 관계를 꼼꼼히 챙겨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이준석 "빠르면 2주내 창당대회"

### 창당준비위 등록... "한동훈, 영남권 현역 3분의 2 물갈이 할 것"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중앙당 창당대회 정도를 할 것 같은데 빠르면 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장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마쳤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명은 3개 정도 놓고 최종 논의만 하면 된다. 키워드가 뭔지는 정해졌다"며 "슬로건은 '노력하는 사람들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 대표인 천하람(천하람·허은아·이기인)의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탈당' 시점을 다들 다르게 잡아놨다. 완료된 이후에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무적인 것들은 이미 다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영남권 현역 의원의 3분의 2가량을 물갈이할 것이라며 "영남 60명 중 40명을 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축장에 가보면 앞에 소가 어떻게 죽는

지 뒤에 소가 못 보는 게 중요하다. 지금 도축장에 하나씩 입장하는 것"이라며 영남권 의원들을 향해 "앞 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가만히 '나는 아니겠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또 "공천 때는 비대위원장 역할보다 공천관리위원장 역할이 더 중요하다. 비대위원장의 이번 역할은 가만히 있는 것"이라며 "공관위원장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한다는 소문도 있다"고 했다. 이밖에 그는 한 비대위원장의 새해 첫 행보에 대해 "현충일 말고 첫 행보가 어디일지 주목해야 한다. 지금 잡혀있기로는 대구·경북 신년 인사회로 알고 있다"며 "1월 2일 대구로 가는 건 이미 포섭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이기겠다는 사람들은 물명 맞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 신년 인사회를 대구로 간다? 시작부터 피해 다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한 비대위원장은 내달 2일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시장·경북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이준석 측근 천하람, 곧 국힘 탈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이 전 대표를 따라 탈당할 것이라고 28일 이 전 대표 측이 전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공지에서 "천 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회견은 천 위원장과 함께 이 전 대표 측근 그룹인 '천하람·허은아·이기인'으로 묶인 허은아 의원 명의로 예약됐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천 위원장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고 이 전 대표의 '개혁신당'(가칭)에 합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언론공지에서 "내 거취에 관해서는 다음 주 중 별도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최대한 정중하고 사려 깊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탈당 시점을 전부 다 다르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된 이후에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측근들의 순차적 탈당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 尹 "적 도발시 先 보복 대응 後 보고"

### 육군 제5보병사단 방문... 병사들과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연말연시를 맞아 중부전선에 있는 경기 연천군 육군 제5보병사단 '열쇠부대'를 방문,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사단 전방대에서 군사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고 "도발을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고 나중에 보고해줄 바란다. 선조지 후보고"라며 "적의 도발 의지를 즉각 현장에서 단호하게 분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여러분이 강력한 힘과 결기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헌법에 침략과 선제 핵 사용을 명시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여러분의 만반의 대비 태세를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는 장병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며 병의 보급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전방에 복무하는 초급 간부들의 수당 인상 등 복지를 충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사단은 6·25 전쟁 당시 피의 능선 전투, 가철봉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자랑스럽고 역사적인 부대"라며 "추운 날씨에도 철동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부대 방문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성환 안보실 2차장, 김태호 안보실 1차장 등이 동행했다. 대기하고 있던 30여명의 군 장병들은 윤 대통령이 들어서자 일어서서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